

# 철쭉 꽃비가 내리면 산본 가는 전철을 타리라

- 군포예총회장에서 실용음악과 교수로

해마다 5월이 되면 군포의 철쭉동산에서 들려오는 노래가 있다. 군포시의 노래 '철쭉 꽃비가 내리면' 이 그것이다. - 나 그곳에 가리라/철쭉꽃이 곱게 물드는/산본 가는 전철을 타고/옛사랑의 추억을 찾아서/이렇게 그리운 밤에는 철쭉 꽃비가 내린다/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나 그곳에 가리라 - 펍 서정적인 가사와 다정다감한 음률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준다. 이 노래의 작사, 작곡자가 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벗님들'의 멤버로 활동했으며 오랜 기간 안양, 군포지역에서 연주자와 작곡가로 활동한 강신웅 교수이다.

그의 SNS에서는 세한대 실용음악과의 학생들과 친구처럼 혹은 큰형이나 오빠처럼 자유롭게 교류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종강 후의 뒤풀이 모습, 공연 리허설 장면, 스승의 날 깜짝파티 하는 흐뭇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그에 달리는 친근한 댓글들이 그가 얼마나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말해 주고 있다.

"대중음악을 하는 친구들의 생명력이 짧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일찍 발탁해 트레이닝을 시켜 2~3년 반짝하다 자취도 없이 사라져 가는 현실이 무심하지요. 주기가 너무 빨라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의 미래를 사회가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행히 세한대에서 배출한 서인국 같은 가수는 음악과 연기 다방면으로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한다. 세상이 금방 금방 변하고 다양화 되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대중음악은 빠르게 진화되어 가는 장르라 더욱 그렇다.

## 연주자 및 작곡가에서 군포예총회장으로, 다시 실용음악과 교수로

강신웅 교수의 행보 또한 변화가 많은 편이다. 80년대에는 대중 앞에 선 연주자 및 작곡가였으며, 군포예총 연합회 지부장을 거쳐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군포



예총 회장으로 예술경영에 참여했으며 그 후에는 후진을 양성하는 세한대 실용음악과의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군포예총회장 재임시 각 지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지만 특히 새롭게 기획해서 시작한 '일요예술무대 -언제나 그 자리에'는 산본 중심상업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생동감 넘치는 문화도시로의 도약에 많은 기여를 했다. 2001년부터 아파트 단지나, 지역 복지센터, 공원, 공장 등에서 펼쳐졌던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가 시민의 생활터를 찾아가는 공연이라면 '일요예술무대'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적 감수성에 부응하기 위한 공연이었다. 또한 군포예총에서 나오는 기간지 '군포예술'을 창간하기도 했으며 국립문학박물관 군포시 유치를 위해서 모든 행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연예예술발전 특별상(2008)을 비롯하여 군포시민대상(2012), 실용음악대상(2013), 군포문화예술상(2014년) 등 적잖은 상을 받기도 했지만 스스로는 본인의 노력에 비해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역축제에 대한 논고로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대중음악계에서 이론이 탄탄하게 갖춰진 몇 안 되는 인재로 음악과 예술경영, 후진양성가로서의 면모를 굳게 다지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음악을 쫓 해 왔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지금도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음악으로 대중 앞에 섰을 때, 즉 작곡을 하거나 기타 연주를 하거나 그럴 때지요. 좋은 음악을 듣고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축복받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슴으로 듣는 음악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기타를 손에 잡은 그는 친구들과 놀기보다는 기타 치는 게 더 좋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착하고 순진하고 음악만 좋아하는 모범생이었다는데 그 당시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에릭 크랩튼이었고 나이가 들면서 성향도 바뀌고 좋아하는 아티스트도 바뀌었다. '벗님들'로 활동하던 시기에는 장발에 특이한 민소매셔츠를 입고 시계를 발에 차고 다니는 등 당시로서는 첨단 유행의 차림으로 젊음을 구가하였다. '벗님들' 멤

버들과는 지금도 교류하고 있다.

“나이가 이만큼 되니 기성의 때가 많이 묻어서 아련한 느낌이 없어졌어요. 좋아했던 노래를 잊고 살고 있어요. 음악을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데, 요즘은 음악이 일이라 머리로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근할 때 들리는 라디오 소리에도 귀가 피곤해져요.”

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듣는 음악이다 보니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옛날에는 비트가 강한 음악이 좋았지만 요즘은 포크 쪽, 비트가 강하지 않고 잔잔한 통기타 음률이 마음에 와 닿는다고 한다.

## 군포와의 인연

강신웅 교수는 안양에서 태어나 쪽 살다가 군포에 살던 아내와 연애를 했고 신혼집을 마련할 때 군포시로 이주하였다. 처음 산본에 와서 본 몇몇의 길들이 그를 매료시켜 지금까지 군포시민으로 살고 있고,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과 중학교 1학년 딸을 둔 아버지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좋아했고 잘 했던 아버지로 남고 싶다고 했다. 후세에게도 대중음악을 시키고 싶다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음악을 했던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는 음악하는 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아들이 음악적 재능을 보이는 데 대해 반가운 마음이 든다고 했다.

“나는 상대음감만 있는데 우리 아들은 절대음감을 타고 난 것 같아요. 같이 음악을 듣다가도 나보고 아빠는 이것도 몰라요, 그러는데 대단하더군요. 그래서 기대해 볼 만하기도 합니다.”

그는 우리나라의 기형적 대중음악 구도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매스미디어와 자본을 가진 자들이 음악 산업을 움직이지요. 수요자가 거의 10대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 다양한 음악이 양산되고 있지 않은 현실이라 안타깝습니다. 각 계층의 음악 선호도가 다변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시장의 다변화도 꾀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소비 위주로 흐르는 경향이라 많은 것을 바랄 수 없어요. 대중음악도 학문적 영역이 반드시 있고 각 장르마다의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대중음악은 진화가 빠른 장르입니다. 리메이크도 활발하고 없



던 장르도 생기는 것이 대중음악 시장인데 정작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없는 게 아쉽지요.”

강 교수는 젊었을 때 같이 음악하던 친구들을 떠올리며, 함께 시작했지만 지금은 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중음악 하는 사람들이 한길로 매진할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중음악의 토대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요즘 각 대학에 많은 실용음악과가 생기지만 정작 그들이 나가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고 한다.

## 군포의 노래

'철쭉 꽃비가 내리면'의 서정적 가사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요즘 나오는 노랫말들에 비해 문학적이고 의미가 깊은 것이라 주의 깊게 듣는 노래이다. 한 번 들으면 저절로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음률도 다정하다 “우리 아들딸도 여기서 살아가는데 아빠가 만든 노래를 물려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가사를 쓰고 작곡한 것입니다.”

처음에 5월 철쭉축제 때 가수 신나 씨의 음반 타이틀곡으로 불러졌고 이제는 군포시를 대표하는 노래로 인식되고 있다. 철쭉 동산에 노래비까지 따로 세워져서 그곳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다.

### 철쭉 꽃비가 내리면

작사,작곡/강신웅  
노래/신나

바람의 향기 불어와 철쭉 꽃비가 내리면  
잊혀져가는 추억이 있네  
빨간 우체통 그곳에 감춰두었던  
그 옛날의 사랑이 그리워지네  
나 그곳에 가리라  
철쭉꽃이 곱게 물드는  
산본가는 전철을 타고  
옛사랑의 추억을 찾아서  
이렇게 그리운 밤에는 철쭉 꽃비가 내린다  
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나 그곳에 가리라.

사랑의 향기 불어와 철쭉꽃비가 내리면  
잊혀져가는 추억이 있네  
낡은 사진첩 그곳에 간직해 놓은  
그 옛날의 사랑이 그리워지네  
나 그곳에 가리라  
철쭉꽃이 곱게 물드는  
산본가는 전철을 타고  
옛사랑의 추억을 찾아서  
이렇게 그리운 밤에는 철쭉 꽃비가 내린다  
수리산역 모퉁이 돌아서 나 그곳에 가리라



## 문화예술인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문화예술 경영에 관심이 많은 강신웅 교수는 2011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0년을 넘게 끌어오던 이 법이 한 예술인의 죽음을 계기로 통과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이 법률적으로 대우를 받는 길은 요원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의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큰 데 비해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제도는 미비한 실정에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문화예술은 창의력이 중시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조화와 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술인에 대한 법적, 경제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또한 순수예술인의 범주와 생활예술인들, 즉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취미로 예술을 하는 사람들과의 혼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연이나 창작 활동 등의 질이 다른데 그들이 공연이나 예술진흥기금의 분배 시장에 끼어들면서 순수하게 문화예술 활동에 전념하던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즉, 그들로 인해 평생을 외롭게 예술발전에 기여하던 이들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책 읽는 군포와 문화예술에 대한 강신웅 교수의 생각을 듣고자 질문을 던졌다. 그는 군포시의 주요시책인 ‘책 읽는 군포’는 문화예술 하는 이들에게도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정책이며 제 1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책 축제와 더불어 공연예술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답했다.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무대에서 보여준 연주 실력과 군포시민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다양한 공연예술을 펼쳤던 예술인에서 이제는 대중음악을 선도할 후진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강신웅 교수. 대학과 지역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권익증진에도 힘쓰는 그의 행보가 앞으로 또 어떻게 이어질지 자못 기대가 크다.

대담 및 글 오은희





# 군포의 모차르트

## 장석기 회장

**“ 노래를 좋아하고 시를 읽고 미술 감상을 하는 모든 예술적 심성들은 아주 고귀한 것인데, 내가 이런 예술적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건 커다란 축복이고 행운이고 기쁨이다 ”**

### 장석기 노스탤지어 퍼스트

12월 2일 그동안 만들어 모아온 가곡을 앨범으로 출시함과 동시에 창작가곡 발표회를 겸한 기전음악제를 연 장석기 전 군포예총 회장(한세대 음대 겸임교수, 이하 회장). 이번 앨범에 실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그 모습이 모차르트를 연상케 했다. (앨범사진이 궁금한 분들께 시디 구매를 추천한다) 장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주위 교수들에게서 가곡앨범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아왔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모두 간단치 않은 문제였기에 미뤄두고 있던 중 지난 6월 드디어 작업을 시작해 10월에 마무리가 됐다.

“노래 부르고 녹음하고... 지나고 보니 엄청난 용기를 낸 것 같다. 앨범작업 자체가 커다란 일이었는데 막상 앨범을 만들고 나니 더 큰 이벤트가 순서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기전음악제가 열린다. 경기도에 장 회장 가곡앨범완성에 발맞춰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이것이 채택됐다. 경기도 주최 군포시 주관으로 열린 기전음악제에 장 회장의 가곡 13곡이 선보였다. 1부는 기존 애창가곡들로 채워지고 2부에 고향, 향수, 사모곡 등 서정적 가사로 이루어진 장 회장의 곡들이 선보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기존 시인들이 참여하기도 한 아름답고 서정적인 가사들로 이루어진 악보를 묶은 가곡집을 음악회가 열리는 날 발매했다. 또 모든 곡은 30개가 넘는 국내 음원 사이트는 물론 미국의 아마존까지 동시에 오픈 발매됐다.



“처음에는 내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곡을 정리하려는 의도였는데 일이 커졌다. 앨범엔 향수, 추억, 그리움들의 시와 멜로디가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그런 의미로 앨범제목을 노스탤지어로 지었다. 여기에 퍼스트를 붙여 여운을 남겼다”

신곡은 기대감과 설렘을 준다. 늘 가요에 국한된 일인 줄 알았다. 가곡의 신곡을 맛본다는 것 그것은 특별한 성찬을 맛보는 일처럼 신선하게 느껴진다. 앨범이 성공하면 맛있는 술 한 잔을 사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 아직까지 공부 하고 계신 거예요?

76학번. 장 회장은 그때부터 작곡공부를 시작했다. 이후 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사업을 하면서 뒤늦게 예술경영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예술경영은 신학문으로써 예술이라는 장르에 경영을 도입해 비즈니스 측면에서 예술을 바라보는 융합학문이다.

예술경영이란 학문은 미국을 비롯한 북미 대륙과 영국을 포함한 유럽 등지에서 30여 년 전부터 학제화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공연예술 같은 경우 국가가 지원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연구조사를 시작했다. 공공재로써 모든 국민이 예술을 향유할 권리. 공기를 마시듯, 수돗물을 공급하듯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공감해 학문적으로 접근하면서 60년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는 20여년쯤 된다.

“2004년에 시작해서 2012년 예술경영학위를 취득하는데 8년 걸렸다.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70대도 일을 하는 구조로 바뀌어 가고 있다. 봉사활동을 하든 직업을 갖든 나이 든 사람이 배우며 일하며 자기 자신을 가꾸는 모습은 아름답다. 배우는 삶은 상당히 의미 있다”

장 회장은 천상 교사인가 보다.

“나는 회사에서 돈을 벌 때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칠 때에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얻고 깊은 삶의 의미를 찾는다. 학업성적 외에는 부모 자식간 대화가 부족한 가정과 공통적 공감 부족으로 점점 멀어지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

### 말과 인간의 교감 “그것은 예술”

장 회장은 유능한 CEO이기도 하다. 말 사업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주)씨앤씨홀스넷이란 회사를 2002년에 설립했다. 장 회장은 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입해서 국내에 보급하고 있다. 국내에선 승마를 포함, 말 관련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제조기반이 부족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장 회장은 말 용품뿐만 아니라 충북 제천에 농장을 운영하며 말을 마사회 등에 공급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특별한 계층을 상대하는데 수익이 나는지 궁금하여 물었다.

“직원들 2~3명이 파견 나가 20~30마리의 말을 키우고 있다. 말을 먹이고 관리하는 비용이 상상 이상이다.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군포에서 나는 수익을 제천에 조달한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농장을 접으면 되지 않느냐고 다소 우매한 질문을 던지자

“말 사업에서 가장 보람되고 메리트가 있는 건 명마를 만드는 거다. 영국여왕도 마주고 귀족들, 유명 인사들이 마주다. 서양에서는 경마가 시작된 예전부터 귀족들이 권위를 뽐내기 위해 경마를 하고 파티를 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 도박으로 바뀌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 않게 됐다. 마사회도 중독 치료 등 개선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국민성이 영국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외국은 경마장이 사교의 장소고 파티를 하는 곳이다. 경마장에서 가볍게 술도 마시고 천원 이천원 배팅하면서 즐겁게 즐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각한 중독 상태까지 발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 여하튼 나는 여전히 명마를 만들고 싶기에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말을 키우고 있다”

국가에서 마리당 얼마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현재까지 말을 키우고 생산하는 일은 마이너스수익 룰이다. 어렵지만 10여 년 동안 말에 대한 애정과 사명감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또 있다.

말은 언뜻 생각하면 체육에 가깝지만 생김새, 뛰는 모습, 묘기를 부리는 듯한 경기를 보면 사람과 혼연일체가 돼 예술로 승화된다. 특히 마장마술을 뜻하는 색다른 승마 드레사지는 사각원안에서 묘기를 보여주는 종목으로 말과 사람이 혼연일체가 매우 경이롭고 아름다운 예술이 된다.



또 승마는 전신운동에도 제격이다. 러닝머신의 기계적인 재미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자연과 달리며 말과 나누는 교감은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다.

### 같은 날 두개의 상을 품에 안다.

지난 10월 7일 장 회장은 두개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포에서는 군포시민의날 문화, 예술, 체육부분 시민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1992년에 이사와 2012년까지 20년을 군포에 살면서 음악협회 지부장, 군포예총회장, 현재도 예총 고문 등을 맡아 예술에 몸담았던 공로가 인정된 듯 하다. 같은 날 서울 세종예술문화재단에서 세종음악상을 받았다. 최근 예술경영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예술경영부분으로 수상했다. 세종음악상은 신인과 기성예술인을 대상으로 매년 음악상을 시상한다.

“두 상 다 상금은 없다. 문학상은 상금이 많은 걸로 아는데...(웃음)예전에 시민대상은 상금을 줬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 축하턱 내라고 여기 저기서 술 사라는 통에 술값이 많이 나간다 (웃음) 그래도 즐겁게 사고 있다”

### 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이 예술을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 줘야

예술인에게 문화재단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는 기부나 기금을 모아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불우한 이들을 위해 적극 지원해준다. 기부문화나 재단문화가 없는 국가에서는 문화재단을 만들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시에도 문화재단이 생겼고 지역예술인들은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기대와 달리 시작점부터 정치적으로 시골벽적하던 문화재단. 지금은 안정을 찾고 있는지? 지역예술인들은 여전히 공갈빵을 손에 든 느낌이라고 한다.







“시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집행하던 것을 재단이라는 별도 독립 기구를 만들었으므로 문화재단은 시의 산하에 있으면 안 되고 엄밀히 독립해야 한다. 시장이 재단 이사장으로 돼 있는 부분도 바뀌어야 한다. 재단을 만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해 전문가 집단에게 운영을 일임해야 한다. 시 산하 조직이 아닌 독립체로 거듭났을 때 전문적인 기능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지 특정 자치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 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이 예술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원해 주고 연구하는 곳이다. 예술자원을 만들고 예술인들과 박자를 맞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곳이다. 군포문화재단을 만들 때 옥상옥이 될까 우려해 반대를 했었다. 우려대로 예술인들이 예측된 형태의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 과도기에 겪게 되는 시행착오라 생각한다. 시간이 지나면 정착할 수 있으리란 기대감을 갖는다”

전문적인 예술경영이 절실히 보인다. 전문가가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빛날 수 있다. 정치인들도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한발 물러나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역할에 충실할 때 도시의 격은 높아질 수 있다.

“예술인들이 시에서 받는 대접은 이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 외부명사 몇 번 초청하고 어디 어디서 상 받았다고 자랑한다고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는다. 시민이나 지역예술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토론의 장도 열어주고 제안도 받아 꾸려 나갈 때 발전이 일어나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다.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청소년문화의집도 모두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의 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포가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분에 귀 기울이고 지원해 줘야 한다”

## 인터뷰를 마치며

인터뷰를 마치고 CD를 선물로 받았다.

8번 ‘못 피는 꽃은’ 과 13번 ‘겨울의 문’ 이 눈에 들어온다.

새 책의 첫 장을 펼칠 때, 새 화장품을 개봉할 때, 선물 받은 속옷의 택을 뜯 때처럼 부드럽게 플레이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CD에 들뜬 기대감을 감출 길 없다.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 음악과 서서히 한 몸이 되어 잠시 정신이 혼미해 지는 것

오늘도 내일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나 가능한 것...

장화장을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은 분명 모차르트였다.

대담 및 글 곽현정



# 긴장된 서정의 세계를 펼쳐가는 박정희 시인

## —들어가며

올해 군포문학상을 수상하는 박정희 시인을 만나기 위해 군포중앙도서관으로 가는 길이었다. 20여m 앞서 가는 정장 투피스 차림에 털코트를 팔에 끼고 걸어가는 분의 단아한 뒷모습이 멀리서 뵈기에도 선생님이신 것 같아 서둘러 뒤를 따라가 인사를 드리니 환하게 웃으셨다. 중앙도서관에서 사진 몇 장 촬영하고 문예창작실에서 선생님을 인터뷰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이 날 사진 촬영은 쉬는 날임에도 이상훈 미협지부장께서 맡아주었다. 우리시의 군포중앙도서관은 산 밑에 입지하여 풍광도 아름답고 건물 자체의 건축미도 뛰어난 곳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으며, 문예창작실이 있어 최근 몇 해 동안 문학상 수상자의 인터뷰를 이곳에서 하였다. 인터뷰에 앞서 중앙도서관의 이곳저곳을 옮겨가며 사진촬영을 했는데 카메라 앞에서 주저함 없이 멋진 포즈를 취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시절 KBS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것이 새삼 떠올랐다. 자신에 대한 당당함과 타인에 대한 배려로서 겸손함을 모두 지닌 모습이라고나 할까.





## —아름다운 가곡 ‘오늘’ 을 작사

문예창작실에 자리하자 박정희 시인은 오래된 음반 한 장을 꺼내신다. 젊은 시절 쓴 ‘오늘’ 이란 시를 테너 엄정행이 불러 녹음한 음반인데, 일전에 인터넷에서 오래된 LP판을 찾아 구매했지만 아쉽게도 재생해줄 전축이 없어서 들어볼 수가 없다 하신다. 이 말을 듣고 이상훈 지부장이 유튜브를 검색하여 엄정행이 부른 ‘오늘’ 을 찾았다. 참 좋은 세상이다. 유튜브에서 엄정행이 부른 ‘오늘’ 을 함께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들었는데 가끔 FM방송에서 이 가곡을 틀어준다. 이 곡은 박정희 시인이 춘천 KBS 근무 당시에 예술제를 하기 위해 춘천고등학교 음악 교사인 한성식이 작곡하였는데 월남에서 방송을 할 때 그 곡이 흘러나와 이렇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한다. 젊어서 쓴 작품인지라 감상적인 치기가 드러나 부끄럽다 하시지만 아름다운 노랫말이었다.

## —박정희 詩의 발원지

박정희 시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작문시간에 동시나 위문편지를 쓰면 잘 된 글이라고 선생님께서 읽으라 하여 읽거나 국어시간에 책을 읽으면 목소리도 좋으니 이다음에 아나운서가 되어라 하던 것이 계기가 되어 청주 여중·고 시절 내내 문예반과 방송반으로 활동하였다. 박정희 시인은 일찍부터 자신의 존재가 무거웠고 늘 아프고 나이에 비해 조숙했던 탓인지 처음 여원을 통해 당선된 작품에 ‘어디선가 어느 누군가가 서러운 결심을 하나보다’ 라는 구절을 썼는데 당시 심사위원이며 대학시절(동대 국문과) 은사이신 미당선생께서 어린 나이에 세상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체험이 아니라 체험이라니 하면서 마땅치 않아 하셨지만 결국은 몇 년에 걸쳐 미당선생께서 <현대문학>을 통해 추천을 완료해 주셨다. 박정희 시인의 이런 정한은 짝사랑하던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안타까움이기도 했지만 당시 나라 잃은 민족으로, 남북이 나뉜 이산의 그리움으로 애상의 정한이 작품 세계에 반영되었으리라. 박정희 시인은 제 3시집인 『문풍지』의 후기에 보면 첫 시집 『내실』은 ‘햇빛 모르고 방안 구석에서 습작으로 얼룩진 시편이 대부분이었다’고 술회하였다.

요즘 동국대 시절 친구들을 만나면 당시를 술회하기를 ‘박정희는 고개를 꺾고 다니는 우울한 여학생이어서 말도 걸기 어려웠다’ 하는데 사실 그때 외로웠고 겨우 여중시절의 멋진 영어선생님을 짝사랑한 것이 고작이었던, 보기보다는 연애 한번 못해보았는데 남들은 오래 누군가 있으려니 했던 것 같다 하신다.

## 오늘

박정희

뽕알게 피어난 오늘을 위하여  
터지게 익어온 보라 빛 아쉬움  
긴긴 너울을 깔아 놓아요  
눈부신 새벽의 이슬길 위에  
영원히 맘 고여 머물고 가자던  
고향의 향긋한 배추밭 아랑 길  
서로가 서로를 예쁘게 닦아요  
숨어서 엿보던 수줍은 전설로  
하얗게 말없는 가슴이 있어요  
타는 듯 새빨간 꽃잎이 있어요  
꽃수레 넘어간 산 너머  
고갯길 뽕알게 피어난  
오늘을 위하여



## —군포에 자리잡다

박정희 시인이 군포에 자리 잡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요즘은 군포의 원로문인모임인 산수회 회원으로 모임에 참석하며 군포에 닳을 내리고 정박 중이다.

처음 군포에 이사와서 오랜 인연을 맺어던 박순녀 소설가가 계셔서 낯설지 않았는데 최근에 따님댁 근처로 이사를 가서 서운하고, 그 외에도 조병무 교수님과는 같이 근무하였던 처지라 군포가 낯설지 않았다. 먼저 살던 곳에서 군포로 옮겨온 가장 큰 이유는 화가로 활동하는 아들의 권유와 숲이 많은 군포가 좋아서였다.”

워킹맘으로 살아와서 아들 하나뿐인데 그 아들이 콩지머리를 하고 알루미늄 철판에 그림 그리는 힘든 작업을 하는데다가 지금도 김장훈 밴드에서 드럼을 치는 아티스트란다. 입시때 공부를 안하고 헤비메탈을 한다고 하여 속을 좀 태웠으나 그가 지닌 예인 기질은 어쩌면 박정희 시인을 닮은 것이리라.

## —월남전 당시 종군 방송아나운서로, 다시 대학강단으로

69년 당시, 월남전 말기에 KBS에서 KBS 출신의 여자 아나운서 중에 종군방송 아나운서를 찾는다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박정희 시인은 그 일을 지원하였다. 실은 결혼을 하고 군인이었던 남편도 파월되었지만 간난아이의 엄마였는데 무슨 용기였는지 모르겠다. 다들 기어들어가는 성격에 어찌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하였는지 용감하다 하는데 어쩌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이다.

사이공(지금의 호치민시) 맹호부대 주둔지로 따라가서 군복을 입고 방송을 했다. 전쟁터에서 내보내는 뉴스는 접전이 있었던 작전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 와중에 몇 명이 부상하고 몇 명의 사상자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들이어서 마음이 불편했고 귀국 후까지 그 일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어 시를 쓰고 『주둔지』라는 제목으로 시집으로 묶었다. 이 일로 신문에 종군아나운서를 한 일이 소개되면서 중앙일보에 특채가 되어 기자생활을 시작했다. 여성중앙에서 일을 할 때는 의상 특집이나 웨딩특집을 기획하며 지내다보니 나오는 상관없이 늘 쫓기는 일이어서 어쩌다 시 청탁을 받아도 마음이 메말라 시를 쓰기가 어려웠다. 방송이나 잡지 일은 모두 시장판처럼 복잡하고 늘 뛰어 다녀야 하는 일이어서 10여년의 세월이 어떻게 지났는지도 모르게 빨리 지나갔다. 그러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생겼다. 이제는 여자로서의 아름다움도 끝나고 뛰어다녀야하는 직장인으로도 지쳤다는 생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석사를 마치고 강사자리가 생겨 학교에 나가게 되었다. 화려한 방송국이나 잡지사와는 달리 학교란 곳은 춥고 허기진 곳이었다. 이곳저곳으로 보따리 장사 같은 강사노릇을 하느라 고달픈 그 시절, 고맙게도 시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한양여대 문창과가 생기면서 뒤늦게 전임이 되어 정년까지 했는데, 그 후에도 좀 더 강의를 하실 수 있으니 나와 달라하여 선문대에 출강을 10년 더 하였으니 거의 삼십년을 대학 강단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일을 했다.

## —워킹맘으로서의 삶

박정희 시인은 어린 아들을 두고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돌아와서도 평생 일을 해 온 여성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지만 그나마 어머니가 든든하고 열성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보면 두만강 강폭이 좁아 북간도까지 당시 많은 왕래가 있어서 일찍이 어머니는 윤동주가 다녔던 북간도의 명동여자보통학교를 다녔는데 아쉽게도 여러 가지 형편

으로 졸업은 못하셨지만 머리가 깨인 신식여성이었다. 당시에 이미 몬테크리스토프작 같은 프랑스 작가의 번역물을 읽고 나에게 이야기로 들려주시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도 책을 읽으셨다. 그런 어머니였기에 사회활동 하는 딸의 기회를 열어주고 싶어 기꺼이 희생을 마다 않으셨는데 93세에 세상을 떠나셨다.

## —시인으로서 삶을 담아낸 시집들

박정희 시인은 첫시집 『내실』을 내놓았지만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시집을 누구에게 선뜻 내보이지도 못하여 혼자 쌓아 놓고 지내 시집을 본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누군가 그 시집의 『노을』이란 시가 좋다 하기도 했다. 두 번째 시집 『문풍지』를 시문학사에서 내고도 그 시집을 누군가에게 선뜻 나눠주지도 못하고 출판사 역시 시집보급에 큰 힘을 쓰지 않았다. 세 번째 시집으로 『주둔지』를 내놓았는데 늘 자신이 부끄럽고 존재 자체가 무거워서 시집도 그냥 끌어안고 지냈으니 시인으로서 늘 무게에 짓눌려 제대로 날개를 펴보지 못했으니 그 또한 생긴 대로 사는 탓이었다.

그 이후에도 『술래의 편지』, 『그에게만 들키고 싶다』, 『다시 만날 그날까지』, 『꽃웃음』, 『이별이 아니면 몰랐으리』를 냈고, 끝으로 낸 시집이 『아, 두만강』인데 함경북도 길주에서 내려온 월남민으로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고향 이야기와 이산의 가족사가 담겨 있어 의미가 있다. 박시인은 함경북도 길주에서 태어나 열 살 전에 내려와서 전쟁의 어려움을 겪은 것은 없지만 가족사와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 속에 혈육에 대한 살 냄새와 북풍의 한기 같은 것이 담겨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인 스스로 그런 자신의 시세계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시들과 이야기 시를 모아 시선을 만들 생각이라 한





## 바람은 지나간다

박 정희

개미 한 마리가  
한 톨의 콩알을 떠메고  
태산인 양 짊어지고  
동굴을 찾아가는 동안  
바람은 지나간다

개미의 사춘기가 지나간다

혼자 남은 아기가  
얼굴을 문지르다  
아기의 눈이며 코를 비비고 만지다  
코딱지를 금딱지를 집어 들고  
휴지통으로 가는 동안  
바람은 지나간다

쓰레기를 버릴 줄 알아가는 동안  
순수의 신화는 지나간다

우리가 길에서 비를 맞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동안  
고개 넘어 역사는 바뀌고  
청춘은 떠내려 간다

다시 한 톨의 콩알을 찾아내는데  
한 생애가 지나간다  
태산의 그림자가 지나간다



다. 그리고 베트남전쟁 당시의 여러 가지 경험과 아픈 기억의 사이공 편지를 시집으로 묶어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사실 박정희 시인은 종군 아나운서를 했다는 그 일로 주변의 반전주의자들에게 비난을 받아 위축되었고 시단활동에도 한동안 지장을 받았는데 당시 오직 전쟁터에서 고난당하던 병사들을 위로하고 소식을 전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한 일이었을 뿐이다.

### —문단에서의 동인활동

문학이란 길을 <여류시>동인들과 오랫동안 함께 해왔다. <여류시>는 <청미회>와 쌍벽을 이루는 모임이다. 동인으로 신동춘, 김지향, 박현령, 김윤희, 왕수영, 김송희 등으로 모두 활발한 활동을 해왔지만 <청미회>에 비하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화합하지 못했다. 신경림, 이경철, 조병무 등은 동대 동인으로 인사동 동국대 모임이라 <인동회>라 불리는 모임을 가졌고, 그 외에도 박순녀 작가, 신봉순 극작가, 안영희 작가 등이 모이는 <원로회>가 있다. 다들 전후세대로 20대부터 문학을 해온 반짝반짝하는 우리 문단의 별들이다. 박시인은 이제까지 여러차례 문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사코 사양했던 것은 내게 그런 일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고 이제 남들도 그런 성정을 아는 까닭에 조용히 지낼 수 있었다. 시인은 결국 시로 말할 뿐이다.

### —나가며

박정희 시의 변화는 자연발생적인 서정시에서 나름 감상을 깎아왔고 모더니즘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았고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쓴 시들로 변화를 모색하였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적 이별의 정한이라던가, 존재에 대한 모색이었다. 박정희 시인은 그중에 첫시집 『내실』에 대한 애착이 제일 큰데 남아 있는 것이 한 권뿐인데다 낡아서 손을 대기가 어려워 아쉽다 하였다.

박정희 시인은 시력 50년을 훌쩍 넘긴 시단의 원로지만 '예민하고 풋풋한 감수성과 냉철한 이성의 자제로 긴장된 서정의 세계'를 펼쳐나간다고 『아, 두만강』의 해설에서 이경철 평론가가 덧붙이기도 했다. 이제 박정희 시인은 많은 것을 내려놓아 새처럼 가벼워졌다고 했지만 그 가벼움의 이면에는 여전히 냉철한 이성의 자제로 존재에 대한 객관성을 잃지 않고 꾸준한 시를 쓰며 깨끗함과 단아함을 지켜가고 있다. 이런 박정희 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문학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평생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게 되니 많은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원로 시인이시다.

대담 및 글 김영애